



에스더 별책부록

* 6/20(토) 에스더1-10장 + 에스라/학개/스가랴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에스라 ①

1-2 고레스칙령과 포로귀환
3-5:1 성전재건 시작과 중단

학개 성전재건 촉구/회복 약속

스가랴

1:1-6 하나님께 돌아오라
1:7-6장 환상들
7-8 금식, 회개 촉구
9-11 회복과 파멸
12-14 전쟁, 정결, 재창조

에스라 ② 5:2-6장 성전완성

타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에스더

1-2 타국 유대인 디아스포라
3-4:3 위기: 모르드개와 하만
4:4-5:8 결단: 모르드개와 에스더
7-8 하만의 죽음, 새로운 조서
9:1-16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구원
9:17-10 부림절의 제정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에스라 ③ 7-10 영적 개혁

6/10(수) 회복, 우선순위

에스라 1-5:1]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학개서] 중단된 성전건축을 재개하라!

고레스칙령으로 포로살이 하던 유대인들에게 귀향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은 낯설었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갔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궁핍과 사마리아인의 훼방으로
16년간 중단되었고, 방치되었습니다.
학개는 성전건축을 재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원칙이 개인과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사람됨과 긍휼, 자비와 공의가 회복됩니다.

6/11(목) 언제까지입니까?

스가랴 1-8] 황폐한 현실, 지체되는 회복의 때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복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지만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2)
내가 정한 시간과 방법에 간혀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혜안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합류하십시오.

6/12(금) 그 이후

스가랴 9-14] 온전한 회복, ‘그 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재, 외형, 규모 등 솔로몬 성전보다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실망한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하나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그 이후>, <하나님 나라 전망>에 대해 선포합니다.
축소된 성전, 축소된 일상, 축소된 사역 속에서
<그 이후>는 두려움과 불안, 미지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이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멸망 587 왕하25

바벨론 포로생활 시편137

고통과 슬픔 애가1-5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559-530(주전)

고레스 칙령(538), 1차 귀환(536)

세스바살, 성전재건 시작

캄비세스 530-522

성전 재건 중단

다리오(다리우스1) 522-486

학개/성전건축 재개(520, 다리오2년)

스가랴 선지자 활동

성전 완공(515, 다리오6년)

아하수에로 (크세로크세스)

486-465 에스더, 모르드개

아닥사스다1(롱기마누스)

2차 귀환, 에스라(458) 영적개혁

3차 귀환, 느헤미야(445) 성벽재건

6/15(월) 불안정한 안정

에스라 5:2-6장] 성전완공, <그 이후>로

에스더 1-3] 타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귀환공동체가 성전을 완공하고 <그 이후>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타국에 잔류하던 유대인들은 나름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부와 수완을 갖추고,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귀환 길이 열렸지만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호의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 그 <잔치>의 신기루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번영과 생존이 <제국>의 돌봄이나 노력/수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6/16(화) 보이지 않는 손길

에스더 4-10]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

<수산궁>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지 않는 곳입니다.

에스더는 <수산궁> 한 가운데서 정체성과 소명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수산궁>을 가리지 않고 일하십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가려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위해 열손가락으로 일하셨고,

에스더를 <수산궁>으로 보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유 없는 시간, 이유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6/17(수) 오래된 새 길

에스라 7-10] 영적인 개혁

1차 귀환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 공동체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개혁을 이룹니다. 3차 귀환 공동체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새 시대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며, 모든 장소와 일상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 언약과 율법으로부터 길을 찾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길. 그들은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오래된 새 길>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